Job p/12



매년 전직원 해외로 자율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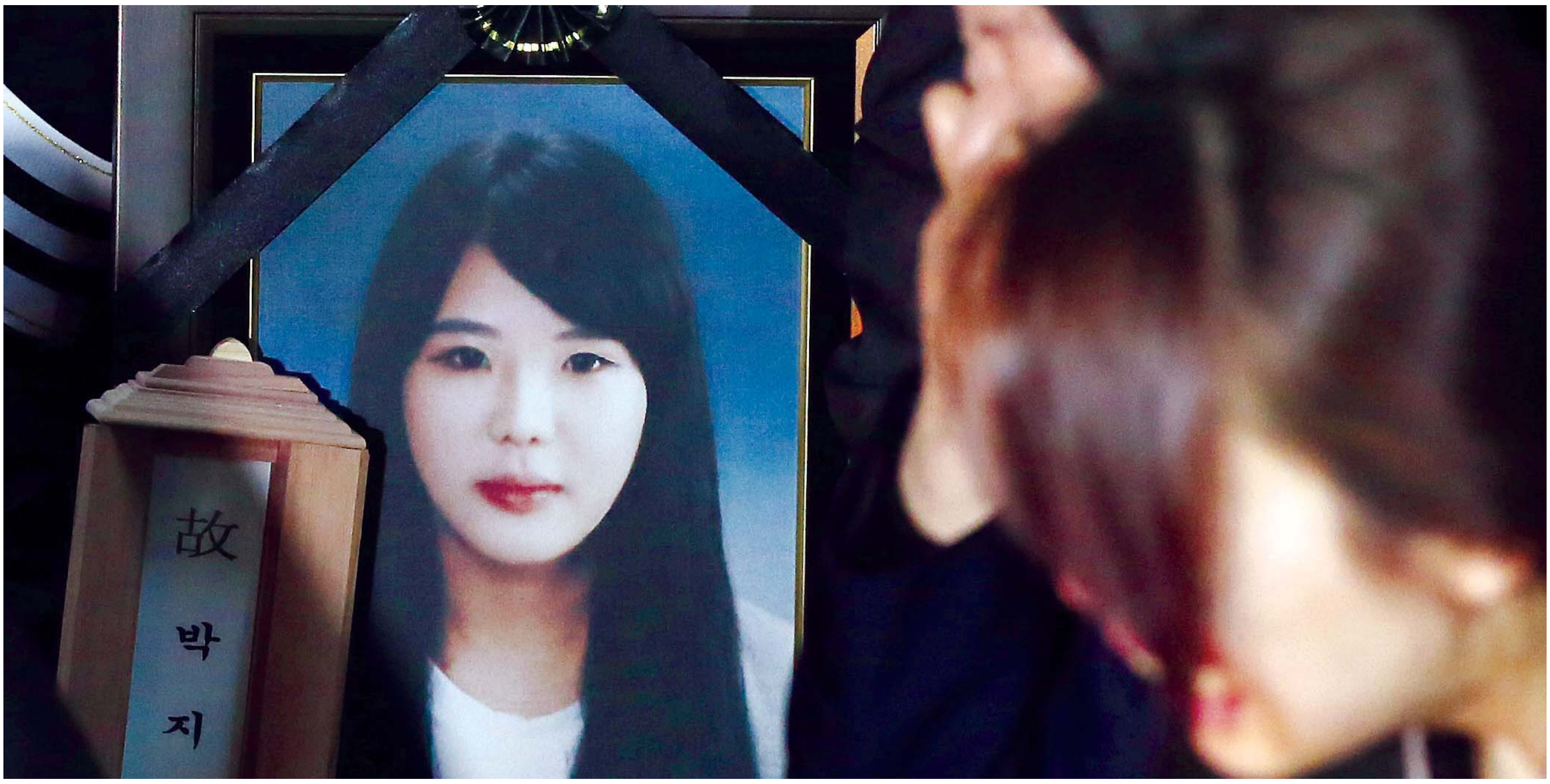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제2962호 www.metroseoul.co.kr

Life p/14



소비자 사로잡는 작은 사치품



"당신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고 박지영(22·여)씨의 영정이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분향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못난 정부 대신 국민이 보듬었다"

자원봉사 1만명에 쏟아지는 구호품…'한마음'
속속 드러나는 '비정상'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세월호 참사 일주일째

"감기에 걸렸지만 아직 바다 속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약조차 먹기가 미안하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잠수사 김모(42)씨.

"배가 침몰하면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뱃사람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승객 27명 구조한 박영섭(56) 선장.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짝이고 있다.

'미개한 국민'이라는 부적절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2007년 선박 기름유출 당시 '태안의 기적'을 일궈낸 시민들은 이번에도 묵묵히 생업까지 포기한 채 구조현장에서 소중한 힘을 보태고 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 무책임한 선장·선원을 비난하던 외신들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기적을 포기하지 않은 '영웅'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22일 진도우체국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착한 위문품이 등기로 온 것만 3300상자에 달한다. 일반우편으로 온 것은 집계하지 못 할 정도로 많다.

우체국의 한 직원은 "평소 하루 8t 트럭 1대 정도 처리하는데 요즘은 4대도 넘는다"며 "'기적처럼 태어났으니 기적처럼 돌아오라'라는 감동적인 문구가 적혀있는 위문품도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현장에서 구조대와 생존자 가족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도 많다. 특히 휴가를 내고 진도로 달려온 봉사자들도 적지 않다.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모(45)씨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주말에는 봉사자가 많을 것 같아 평일에 연차 휴가를 이틀 내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달려왔다"고 말했다.

전남도청은 사고 발생 이후 엿새 동안 총 1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신 '세월호 영웅' 조명

민간인 잠수사와 어민들의 활약도 눈이 부실 정도다. 아직 생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민간인 잠수사들은 외부와 연락도 끊고 구조활동에 몰입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 잠수사들은 구조 작전이 조류 등에 의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했다.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는 오징어배, 시신 유출을 방지하는 쌍끌이 어선, 기적을 믿는 머구리 등도 정부의 요청이 있기 전에 스스로 현장으로 달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자발적인 애도 분위기가 한창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해피빈에는 '여객선 침몰 참사 긴급 구호'라는 제목의 모금함이 마련돼 네티즌들의 클릭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고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사회의 치부만을 전하던 외신들의 시각도 점점 바꿔 놓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세월호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다 안타깝게 숨진 승무원과 교사의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5)씨가 사건 당시 아내와의 통화에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해. 길게 통화 못 해. 끊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갑판 위에서 울고 있던 권지연(6)양을 끌어안고 구명보트로 뛰어든 박호진(17)군의 사연을 비중있게 전하며 선장은 배를 버렸지만 살신성인의 영웅들은 비극 속에서 희망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명단에 없는 외국인 시신 발견

세월호 승선자 명단에 없는 외국인의 시신이 발견돼 정부가 발표한 승선·실종자 수 집계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1일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신 3구를 수습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상황게시판에 이들은 리다OO(38·76번째 사망자), 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77번째), 리샹XX(46·83번째)다.

리다OO는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 학생은 러시아 국적 단원고 학생 세르△△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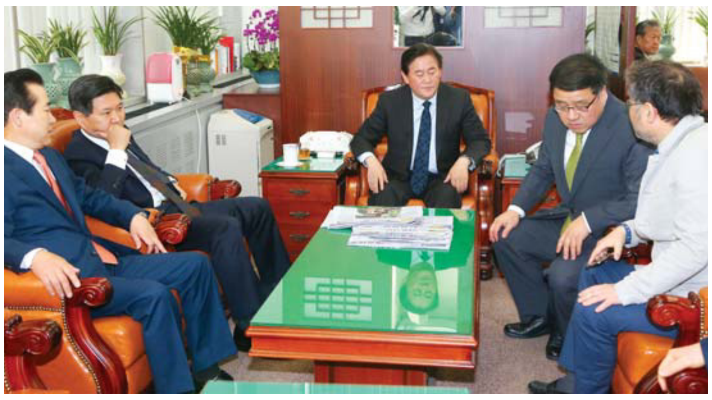
이들 중 리샹XX는 정부가 476명이라고 밝힌 승선자 명단에 없었다.

정부는 리샹XX와 동료 중국인이 세월호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들로부터 확인하고 동료의 차량이 배에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2명의 승선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재중동포(리다OO 부부) 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중국측에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첫날인 16일 탑승객수를 477명에서 이후 459명, 462명, 475명, 476명으로 계속 번복한 바 있다.

/윤다혜기자 ydh@



곤혹스러운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를 앞두고 권은희 의원 등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사 후진적 보도 유감

기자 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 8일째를 맞는데도 좀처럼 구조작업에 진전이 없자 방송사들은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 등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재난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만큼이나 방송사 또한 선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보도로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만들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는 18일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오보를 내보냈다. MBC는 보험금에 관해 보도했고, SBS는 기자의 웃는 얼굴을 내보냈다. JTBC는 단원고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에 대해 언급했으며, MBN은 민간잠수부를 사칭한 홍가혜씨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과 미숙한 재난 대처가 불러온 또 하나의 '참사'다. 더욱이 구조 작업 진척 상황을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매일 날씨 탓만 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슬픔에 빠진 많은 국민이 외출을 삼가고 보도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보 제공을 제대로 못한다면 적어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예방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방송사 역시 후진적인 재난 보도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선동꾼 주장' 권은희 조사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등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권 의원 등 18명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이다. 그런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또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며 선동하는 이들"이라며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기로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라는 글도 올렸다.

동영상 등에 나오는 A(41·여)씨는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 권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다혜기자

뉴스&뉴스

'가족대표 행세' 송정근, 22일 탈당

●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 행세를 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송정근 씨가 22일 탈당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송씨의 징계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이상직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이 2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언 일가 수사 확대

청해진해운 실 소유주 재산 수천억…검찰 정밀 추적나서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2일 인원을 대폭 보강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은 인천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에 대비, 미리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외 재산 내역을 추적 중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유씨 형제는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뉴욕과 영국, 프랑스 등지에 법인을 세워 각종 사업을 벌여왔다. 2년 전에는 프랑스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미국 등 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탈세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유 전 회장은 그 뒤 종적이 묘연하다가 최근 얼굴없는 사진작가 '아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억만장자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눈물의 기도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희생자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한 신도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 4차 핵실험 25일 전후가 고비"

국방부·합참 TF 가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차량 움직임 증가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동향에 대해 "현재 많은 활동이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언급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25~26일)이나 이를 전후한 날을 D-데이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25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핵실험 패턴으로 볼 때 긴장조성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단행하기까지에는 아직 한두단계가 더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일단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김민준기자

'정치글' 논란 연제욱 靑 비서관 교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육사38기·소장)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교체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21일 발표한 장군 인사에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교육사 부사령관으로 보직시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사이버사령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 전 비서관이 더는 군과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을 통해 연 비서관의 책임 문제와 관련, "감독을 소홀히 한 범위에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임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는 장경석(육사 39기) 소장과 장혁(육사 39기) 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jhj@

조류 느려져 수색작업 활기

시신 수십여구 수습 사망자 120명 넘어서…UDT 1명 마비증상

세월호 참사가 발생 1주일째를 맞았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2일 조류가 가장 느리고 수위도 낮아 수상·수중 탐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구조팀은 이날 해경(90척), 해군(35척) 등 함정과 민간어선 239척, 항공기 37대, 잠수사 등 구조대원 755명을 투입해 노래방, 식당 등 편의시설이 집중된 3층 휴게공간(라운지)과 학생들이 머문 4층 선미 객실에서 다수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당시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승객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다. 이미 설치된 5개 가이드라인 외에 상황에 따라 5~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후 1시 37분께는 수중탐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한 해군 UDT 소속 상사 1명이 마비증상을 호소해 청해진함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실종자 가족이 모인 체육관에서는 해경 기획조정관이 "인양 관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방법도 논의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도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해 구조작업을 바라는 가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시신이 취재 카메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사망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망자에 대한 접근 제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구조팀은 전날 총 29구에 이어 이날 34구의 시신을 수습해 22일 오후 10시 현재 사망자는 총 121명이며 실종자는 181명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승무원 4명 영장실질심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학여행 이어 소풍도 취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1학기 동안 중지하기로 한 가운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의 봄 소풍 등 야외활동도 취소되고 있다.

22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유치원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상당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이 봄 소풍·현장학습 등 일일 야외활동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A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부모님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의 B초등학교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현장활동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일단 잠정 연기하기로 했는데 아예 취소하자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도 숙박형 활동은 자제하도록 하고 일일 야외활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윤다혜기자

악성글 유포 누리꾼 줄줄이 덜미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우롱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이 경찰에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인터넷에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LPG 가스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민간 잠수부 관련 자격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SNS에 세월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등학생 B(18)군과 세월호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일간베스트 회원 C(20)씨도 검거,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구조자 학부모 대국민 호소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자 학부모들이 2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교육지원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구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 17일 창동역 2번출구 하부 문화공간조성사업 완공 행사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관식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지역 활동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출범

서울시 영등포구가 '인권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아동·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전문가 15명을 인권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으로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원장이 선출됐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서울시 금천구는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살 기도 승무원 등 2명 추가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8)씨와 다른 주요 승무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손씨의 경우) 자살 기도 직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앞서 체포한 (주요)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른 주요 승무원도 승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김민준기자

팽목항에 간이 영안실 설치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신속한 검시 등을 위해 위해 팽목항에도 간이 영안실을 설치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사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례비 지원, 시신 안치 편의 및 신속한 검안·검시, 분향소 운영, 사망자 이송 편의, 가족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팽목항에 간이 영안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후 국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했다.

구체적 장례지원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족 대표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모여 협의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산재 후유증 치료 건강보험으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이내에 후유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는 요양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분을 환수당하는 불편을 겪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4만건, 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에서 산재 후유증을 치료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금액은 반환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간 2000여명의 산재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전국 대학교 우체국 없어진다

전국 대학교에서 구내 우체국이 사라진다.

우정사업본부는 22일 '대학 구내 우체국 합리화' 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교의 구내 우체국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7월1일부터 101개 대학 내 우체국을 취급국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우본은 "우편 물량이 감소하면서 우편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이 적고 접수 물량이 감소 중인 대학우체국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우정청은 구내 우체국을 취급국으로 전환할 101개 대학을 선정해 공고했으며, 이달 말까지 학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학 내 우체국이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되면,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수 등은 취급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지만, 금융 업무는 창구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우본은 금융 담당 직원을 다른 우체국으로 배치하는 대신 대학 내 취급국에 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미꾸라지야 모기유충 잡아줘 서울 서초구 새마을 방역봉사대원들이 22일 반포동 반포천에서 모기 유충 등 위생해충 제거를 위해 미꾸라지를 방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입전형 함부로 변경 안돼

법령 개정·정원 감축만 허용

앞으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하도록 하고서 발표 후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윤다혜기자

서울 내달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전구(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김민준기자



덕성여대, 중간고사 죽 제공

덕성여자대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인 24일까지 교내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덕성여대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 전복죽·해물죽·소고기표고버섯죽·닭채소죽 등 요일마다 특색 있는 영양죽과 토스트, 삶은 계란까지 매일 1000여명의 학생이 식사할 수 있는 양을 배식할 예정이다.



우체국예금보험 그림 공모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6회 우체국예금·보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응모 주제는 우체국예금·보험, 우표, 집배원, 우체통 등 우체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열에 둘은 '연상녀' 커플이네…

작년 4만1300건 결혼 최다…초혼 남 32.2·여 29.6세

여자의 나이가 더 많은 '연상연하 커플'의 혼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2세, 여자 29.6세로 또다시 높아졌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는 32만2800건으로 전년(32만7100건)보다 4300건(1.3%) 줄었다. 2012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6.4건으로 전년(6.5건)에 비해 0.1건 감소했다.

초혼부부 중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연상연하 커플' 혼인 건수는 4만1300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남자가 연상인 부부의 혼인은 모두 17만2800건, 동갑내기 부부의 혼인은 4만1400건이었다.

구성비로 보면 남자 연상 부부가 67.6%, 여자 연상 부부가 16.2%, 동갑내기 부부가 16.2%다.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역대 최저,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격차가 좁혀졌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전년에 비해 각각 0.1세와 0.2세씩 상승했다.

남자 초혼 연령은 주 혼인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했고 서울과 부산, 제주 여자 초혼 연령은 30세를 넘어섰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붐비는 취업박람회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참가자들로 취업관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작전세력에 이사 직함주고 주가 조작

검찰, 동양그룹 4명 구속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이사 직함을 내주고 자금을 대며 작전세력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동양시멘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투자자 강모(44)씨와 투자자문업체 E사 이사 공모(35)씨, 이 회사 고문 이모(41)씨, 시세조종 전문가 유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량이 적고 계열사 지분이 대부분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타깃으로 삼았다. 정식 직원이 아닌 강씨는 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갖고 다니며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인 유씨와 함께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거나 주식을 모두 사들여 물량을 소진시키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이 18만228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결과 2011년 12월 주당 940원이던 동양시멘트 주가는 이듬해 3월 4170원으로 뛰었다.

동양그룹은 2011년 주가조작으로 122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김민준기자 mjkim@

현대중 선박 작업 중지

21일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중공업도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의 8만4000t급 LPG운반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때문에 5월 완공 예정인 LPG운반선 건조 시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이날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김민준기자



22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에서 참배소로 가기 위해 신관을 뒤따르고 있다. /AP 연합뉴스

日국회의원 야스쿠니 참배 도발

자민·민주 등 146명… 총무상은 12일 이어 두번째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 전체가 비통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틈을 타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이 22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자민, 민주, 일본유신회 등 146명의 국회의원들은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야스쿠니 참배에 나섰다.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야스쿠니를 또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신도 총무상은 취재진에게 "전쟁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면서 "사적인 참배이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참배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개인의 입장에서 참배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주변 국가들을 의식한 듯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연맹은 매년 춘계·추계 예대제와 8월15일 패전일에 야스쿠니를 참배해 왔다. 지난해 춘계 예대제 때는 공식 집계 기록이 남아 있는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168명이 참배한 바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세월호 위로 방한 될듯"

백악관, 일정 설명… 오늘 일본 국빈 방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오는 25~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큰 부분이 될 것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번 사고는 대통령 순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미 해군에 재난구호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단순히 언론성명을 내지 않고 기자회견 때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표했다. 이는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해군 해난구조선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브 워런 대령은 "한국이 구조선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 태국에서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2박3일 체류 일정으로 23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와 비공식 만찬을 가진 뒤 24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이후 18년 만이다. /조선미기자

"퐁듀 많이 드시면 안돼요"

스위스 예방의학연구소장 염분 과다 섭취 우려 경고

"치즈로 만든 퐁듀 등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스위스 예방의학연구소(CHUV)의 프레드 파차우드 소장이 최근 스위스 의학 포럼에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파차우드 소장은 "스위스인이 소금을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장량인 5g보다 많은 하루 평균 8~12g을 섭취하고 있다"며 "이는 소금 성분이 많은 치즈를 먹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학 전문가들도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스위스인이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염분 과다 섭취로 유발되는 질환의 사망자가 연간 1000여 명 줄 것"이라고 밝혔다.

파차우드 소장은 그 해결책으로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치즈와 빵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대폭 줄일 것을 권했다. /조선미기자

"자원 봉사자 그만 오세요"

metro Chile

화재 피해 발파라이소

Alcalde pide: no más voluntarios en Valparaíso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까지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원 봉사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칠레 항구도시 발파라이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너무 많아 되돌려 보내야 할 지경이기 때문.

칠레 제3의 도시 발파라이소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만큼 빼어난 정취를 간직한 곳이다. 최근 이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가옥 2000여 채가 불에 탔다. 사흘간 이어진 화재로 760ha가 소실됐고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망자도 최소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칠레 전국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호르헤 카스트로 발파라이소 시장은 "도로가 막혀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 "교통 정리를 함께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피해 지역은 언덕에 있어 잔해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필수다.

발파라이소 시장은 "자원봉사 지원은 감사하지만 전문적인 준비 없이 맨몸으로 온 사람들은 별로 도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를 동원해 모든 구역에서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봉사자들이 많아지면 중장비에 다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2004.22	(+5.00)
코스닥	570.98	(+1.70))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환율(원·달러)	1038.30	(−0.50)

뉴스&뉴스

역대 최고가 토지 경매 등장

●토지 경매물건의 역대 최고 감정가 기록이 2년 2개월 만에 경신됐다.

22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달 30일 수원지법 경매법정원에서 첫 입찰에 오를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소재 13만3182㎡ 규모의 임야 감정가가 1925억6576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양호한 입지, 잘 구축된 도로망,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전 최고 기록은 인천 소재 12만4267㎡ 규모 잡종지로 당시 감정가는 1764억5914만원이었다.

현재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 총액은 417억2000만원, 경매신청 채권자 청구액은 152억1870만원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폴라리스 오피스' 무료화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인프라웨어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버전으로 출시한다.

새로워진 '폴라리스 오피스'는 무료로 문서 읽기와 편집이 가능하며 자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문서의 자동 동기화를 통해 PC와 모바일기기에서 연속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작성된 문서는 동료와 쉽게 공유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문서 기반의 협업 기능도 강화됐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MS 오피스와의 우수한 호환성과 다양한 문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스마트뱅킹 카톡까지 품나

가입자 3700만 돌파… 6월 '뱅크월렛 카카오' 출시

직장인 김민석(32)씨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나면 휴대전화부터 꺼내든다. 그는 자신이 먹은 밥값을 동료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후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잔액을 관리한다.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관리하는 김 씨의 모습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금융결제시스템은 스마트폰을 등에 업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스마트뱅킹 가입자 수의 급증과 함께 카카오 등을 통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은행의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수는 700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앱인 'KB스타뱅킹' 가입자 수도 8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채널의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뱅킹 이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휴대전화에 칩을 넣어 사용하던 기존의 모바일뱅킹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IC칩과 VM 뱅킹 고객은 131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스마트뱅킹 고객은 2396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37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모바일뱅킹이 칩을 넣어 쓰는 IC칩 기반과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VM뱅킹,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스마트뱅킹으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뱅킹을 중점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뱅킹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를 출시하기로 했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사진·동영상 콘텐츠를 보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모바일 지갑에 충전하면 자유롭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의 출사표에 금융권에서는 보안과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은행권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이미 3500만 국내 가입자를 확보한 메신저 플랫폼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등 여러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까지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마트뱅킹은 이제 금융권의 당연한 부분이 됐다"며 "은행권에서는 모바일 고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당국도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숨 돌린 코스피 22일 코스피지수가 하루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2000선을 상향돌파, 전날보다 5포인트(0.25%) 상승한 2004.22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긴장이 풀리는 듯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배당 탓?

수익률 겨우 1.2%… 외국인 유인매력 부족

코스피가 수년째 갇혀 있는 1850~2050선 박스권에서 벗어나려면 배당에 인색한 국내 기업들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배당에 신경쓰는 정도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당 수준이 낮으면 주가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 수준)이 저평가 받게 된다는 논리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기업들 중 지난 20년간 주당 배당금을 매해 조금씩이라도 늘려온 곳은 코카콜라, 월마트, 3M 등 총 58개사"라며 "반면 국내 기업들 중 최근 10년간 매해 배당을 늘린 곳은 전무하고 이 기간 5차례 이상 배당을 늘린 곳도 11개사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상장사의 배당은 주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로 미국의 해당 58개사의 주가는 113% 올랐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60%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 상승률인 26%를 대폭 웃돌았다.

반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주가 수익률+배당 수익률)은 연 평균 -0.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한국과 중국뿐이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스피의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9.1배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 자금 중 배당을 노리는 수요가 한국 증시를 외면할 가능성은 커졌다. 특히 코스피가 2000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자 배당 문제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김상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들에게 배당을 요구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거나 한국의 대안이 될 만한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앱' 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기 쉽도록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피해예방 매뉴얼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안내서'를 책자, 리플랫 및 CD 형태로 보급한 바 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으로 제작, 보급하게 됐다.

모바일 앱은 △피해사례 중심으로 예방·구제법 안내 △피해 발생 시 빠르고 쉽게 구제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피해구제 관련 기관 전화, URL 연결 △만화형태로 피해예방 요령 등 총 3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 등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종으로 개발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모바일 앱마켓에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통신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490만원(3.3㎡당)대부터 가능한 내집마련의 기회!
1,635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의 가치!
59㎡형
72㎡형
84㎡형
특별한 감동, 그 이상의 프리미엄 신세계 –
한양건설 양주 H CITY
주택홍보관 개관중
(예정사)
한양건설
양주 H CITY
블록버스터급 비전
• 홍죽일반산업단지와 광석택지개발지구의 1만여세대 첨단자족 미니신도시
• 의정부~양주~동두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동북부 산업대동맥의 중심
압도적인 초고속 교통
• 단지 바로 앞 국지도 39번 도로 확정, 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지는 쾌속교통망
• 1호선 경원 복선전철, 3번국도와 우회도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요지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예정), 수도권광역GTX(의정부노선 계획)
청정힐링 그린 네트워크
• 북한산, 감악산, 천보산에 둘러쌓인 수려한 자연환경
• 백석생활체육공원, 신천생태하천복원(예정) 등 친환경 웰빙환경
쇼핑 · 예술 · 교육 컬처라인의 중심
• 양주문화예술회관, 양주문화원, 양주시립도서관, 양주 행정타운(예정), LG패션복합타운
• 기산저수지, 송추아트밸리, 청암민속박물관, 장흥조각공원, 장흥아트파크 등 근접
• 단지 내 유치원, 가남초, 조양중, 백석 초 · 중 · 고 외 광석택지개발지구 내 초 · 중 · 고 예정
주택홍보관 위치
59㎡형/72㎡형/84㎡형 총1,635세대
문의 031.8787.010
(가칭)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
시공 한양건설(예정사)
자금관리 KB 부동산신탁

금통위원 후임은 누구?

김지홍 KDI 교수, 허경욱 전 OECD 대사 등 물망

임승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가운데 누가 차기 금통위원으로 임명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위원은 지난 14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전 위원은 당시 이임식에서 "시장 압박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거시에 대한 이해를 얻고 간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위원으로 세 가지를 얻었다"고 언급한 뒤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이해를 얻고, 건강도 얻었으며 한은 임직원들과 신의도 쌓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금통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후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는데다 차관급 대우와 2억원대 중반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임기도 보장된다. 금통위 멤버는 총 7명이다. 당연직으로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참여하고, 5명의 금통위원이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총재 4년, 부총재 3년, 나머지 임명직 위원은 4년으로 모두 연임이 가능하다. 후임자는 은행연합회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에는 김지홍(왼쪽 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허경욱(오른쪽)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현 정권 들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 금통위 자리에 추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통위원은 청와대가 낙점해 온 사례가 많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영종하늘도시 조감도

영종하늘도시 전세만 '호황'

차익 기대감 높지 않아 매매는 외면

그간 '유령도시'로 불리던 인천 영종하늘도시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종합관광·레저허브인 드림아일랜드 조성을 시작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투자이민제 미분양아파트 확대 검토 등의 개발호재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불 꺼진 아파트가 수두룩했던 영종하늘도시에 올 들어 이사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돼 비어 있던 집들을 건설사가 전세로 전환하면서 속속 입주가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가장 인기가 좋은 '힐스테이트'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106건의 전세(월세 제외) 계약이 이뤄졌다. 작년 10월 전세 전환을 실시한 이래 6개월 만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인근 '우미린2차' 역시 올 들어 3월까지 104건의 계약이 이뤄지며, 3개월 만에 전세로 나온 250여 가구 전부 세입자를 찾았다. 59㎡ 소형으로만 이뤄진 '한양수자인'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하지만 전세 외 거래는 여전히 썰렁한 수준이다. 1분기 106건의 전세가 계약된 '힐스테이트'의 경우 매매 거래량은 3건에 불과하다. 83㎡의 가격도 분양가에 한참 못 미치는 2억7700만~2억8000만원이다.

이 기간 '우미린2차'는 15건 계약했지만 이중 8건은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빠진 3억원 이하로 거래됐다. 심지어 2억1900만원에 계약된 사례도 있다. '한양수자인'도 최초 공급가보다 4000만~5000만원 싼 1억9000만원과 2억1300만원에 2건 거래됐을 뿐이다.

인근 N공인 대표는 "드림아일랜드, 카지노 개발 소식 이후 잠깐 문의가 늘기는 했는데 현재는 조용하다"면서 "집주인들은 3억원 이상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계약은 그 아래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도 그대로다.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3월 이들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수는 '힐스테이트' 316가구, '우미린2차' 251가구로 1월 물량과 같다. 오히려 '한양수자인'은 1월 152건이었던 미분양이 2월 188건으로 증가한 뒤 3월에도 유지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다 좌초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뒤 거래를 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영종도 개발 속도에 따라 거래 증가, 시세 회복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옥기자 pso9820@



"여성 취업버스에서 상담 받으세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주민센터 인근에 주차된 '여성 취업 버스'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송파구는 전문 상담가가 직업 적성검사 및 취업,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버스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분양 최고 인기는 '용산'

올해 분양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으로 '용산'이 꼽혔다.

2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4~20일까지 만 20세 이상 자사 회원 744명을 대상으로 '2014년 분양시장 핫플레이스'를 조사한 결과, 서울 용산이 1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위례신도시(17.1%)가 2위, 강남재건축(16.0%)이 3위로 집계됐다.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무산 이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이 다시 쟁점화 되고 있는데다, 최근 서울시가 후암동을 단독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례는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권역에서 주로 분양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성남·하남 등 경기권역 위주로 물량이 남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 3위를 차지한 강남 재건축은 최근 가락시영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로 재건축시장에 대한 열기가 주춤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분양 받을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2%가 미래가치(개발호재)를 꼽아 개발을 통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통·학군 등의 생활환경(37.6%), 가격(10.8%) 순으로 나타났다. /박선옥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15년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등 대상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달 25일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가구수 증가 범위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진단은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

김종준 행장 퇴진 압박 금감원 제재내용 공시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문책경고를 받았던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퇴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금융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임기 만료 시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키로 했다.

그의 중징계가 사실상 금감원으로부터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의중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정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제재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또 김 행장이 버틸 경우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강도의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앞서 김 행장은 지난 20일 "내년 3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백아란기자

KT 내부 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issue&view
황창규 색깔 입히기 본격화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8320명 특별 명퇴신청 젊고 가벼운 조직으로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특별명예퇴직과 첫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본인의 색깔 입히기에 본격 나섰다.

22일 KT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한 결과 83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23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30일 퇴직할 예정이다.

이번 명예퇴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명퇴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도 51세, 평균 재직기간은 26년이었고, 50대 이상이 69%, 40대가 31%였다.

KT는 이번 명퇴를 통해 젊고 가벼운 조직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이들 신청자가 모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직원 수는 현 3만2188명에서 2만3868명으로 감소하고, 평균 연령도 현 46.3세에서 44.5세로 낮아진다.

이번 명퇴 규모는 지난 2003년 5497명, 2009년 5992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KT 내부에서는 이번 명퇴 신청이 예상보다 많은 데 대해 퇴직자들이 원할 경우 KT M&S, ITS(고객서비스법인)에 2년간 재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퇴직자들에게 '1인 영업점' 창업 지원이나 창업·재취업컨설팅 등 전직지원프로그램 제공 효과가 톡톡히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 전 급여 2년치 수준의 가산금인 특별퇴직금 또한 명퇴 대상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실질 퇴직금 외에 제공되는 특별퇴직금 규모를 총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KT는 이번 명퇴로 2분기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매년 약 7000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변화는 황창규 회장의 내부 개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황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최근 KT 내부적으로 바뀌어야 할 문화가 보인다"며 "다만 아직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는 아닌 것 같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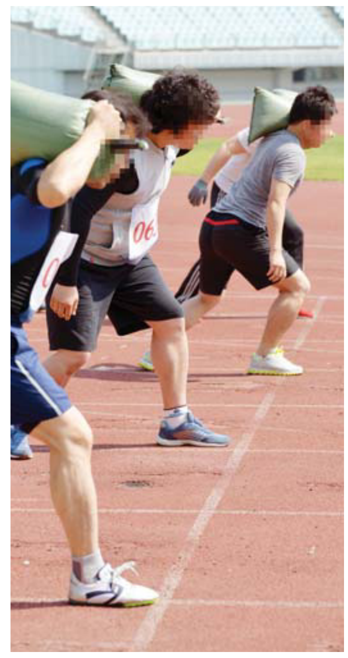
이 같은 황 회장의 행보는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볼 수 있다.

황 회장은 계열사 CEO와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1등에 대한 도전과 혁신 정신, 하나된 그룹의 일원으로서 계열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룹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열사 전략방향의 첫번째로 삼으라"며 "KT와 전 계열사가 한 몸처럼 '싱글 KT'가 돼 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글로벌 1등 KT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업계에선 27일부터 KT의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KT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단독 영업기간 가입자 점유율 확대를 위해 24일 새로운 요금제를 포함한 서비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황 회장 취임 100일(5월 6일)과 맞물려 이번 KT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며 "삼성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위기의 KT를 그만의 색깔로 환골탈태 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어렵네" 경기도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채용 응시자들이 22일 종합운동장에서 20kg 마대 들고 오래 서 있기와 20kg 마대 메고 100m 달리기 등 체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비부머 덕분에… 신설법인 수 역대 최고

지난달 신설 법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신설법인 수는 전월보다 559개 증가한 7195개에 달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해 7월의 7140개였다.

한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신설 법인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 배율도 126.2배로 2월의 122.9배보다 상승했다. 부도업체 수는 법인 57개, 개인사업자 16개 등 총 73개로 전월보다 5개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월 11개에서 3월 16개로 5개가 늘었고 서비스업은 27개에서 30개로, 기타는 4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은 26개에서 21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개에서 21개로 줄었지만 지방은 40개에서 52개로 늘었다. /김민지기자 minji@

복잡한 골목길도 척척 '보행자용 내비' 출시

앞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보행자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빠르고 다양한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걷기 내비게이션 앱(걸음길도우미)을 개발해 23일 시범지역인 서울시부터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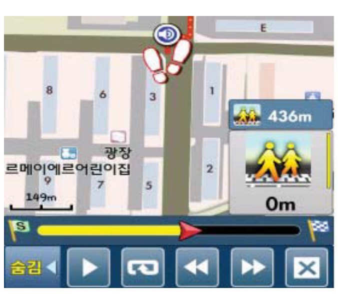
그동안 내비게이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을 뿐, 보행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었다. 좁은 골목길이나 육교, 계단, 지하보도 등의 상세한 도로망도 구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공동으로 보도, 자전거길,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이 모두 담긴 고정밀 지도를 구축해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를 제작하고 스마트폰 앱에 적용했다.

국토부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한해 우선 서비스하고 앞으로 모든 기종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를 민간이 활용해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LG유플러스 전자결제 보안 강화 LG유플러스는 인증 전문업체 '디멘터'와 전자결제 시장 보안 강화와 신규 인증방법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MS, 노키아 인수 25일 완료

자회사 MS모바일 유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25일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 인수를 끝낸다.

노키아는 22일(한국시간) "디바이스와 서비스 비즈니스를 MS에 매각하는 거래가 25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9월 54억 유로(약 8조원) 규모의 빅딜에 합의했다. 당초 두 회사는 올해 1분기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중국과 한국 등에서 규제 당국 심사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끌었고 인도에서 진행중인 노키아의 세금 소송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무총괄 수석부사장은 이날 블로그에 노키아의 발표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또 MS가 인수할 노키아의 디바이스와 서비스 부문이 MS의 100% 자회사가 될 것이며 MS의 모바일 부문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키아가 만든 윈도폰.

하지만 그는 스티븐 엘롭이 이 자회사의 책임자로 남을지 여부, 회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기자 zen@

“최대 5배 부가금 물린다”

산업부, 연구개발 자금 부정 사용 엄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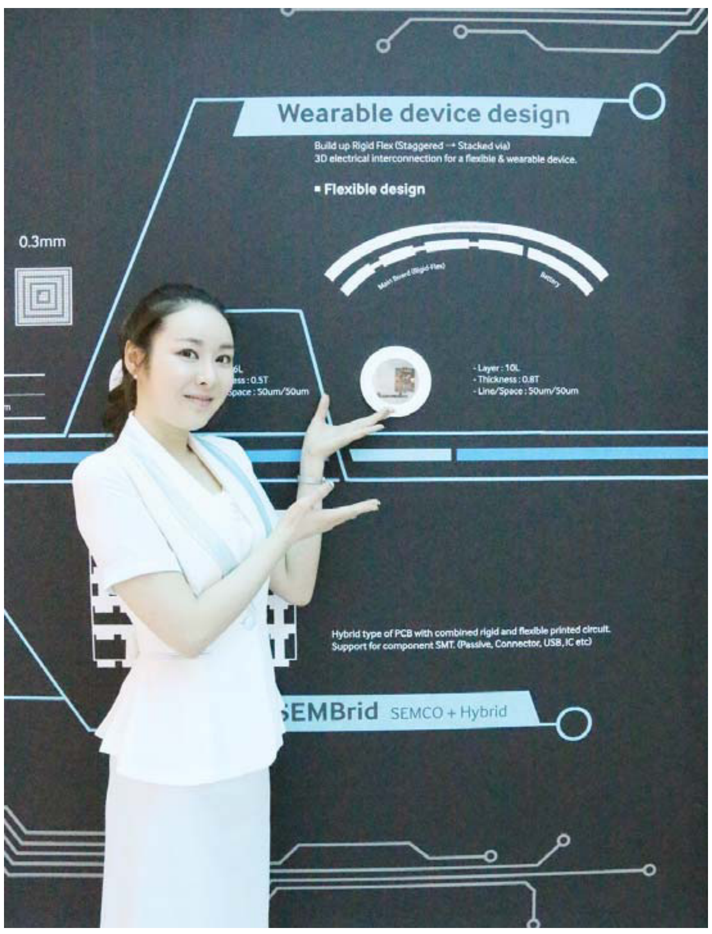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조항과 경과조항도 두고 있다.

입법 예고한 산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와 부과율 완화(시행령),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재부가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boa@



“휘어지는 인쇄회로기판 보러 오세요” 삼성전기는 24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4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KPCA) 전시회’에서 휘어지는(플렉서블) 인쇄회로기판(PCB) 등 첨단 기술력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제공

동아전람, 서울 스포츠·레저 박람회

MBC가 주최하고,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3회 서울 스포츠·레저 산업 박람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헬스 및 피트니스 ▲아웃도어용품 ▲등산 및 캠핑용품 ▲자전거 ▲수중스포츠 및 레저관련제품 ▲스포츠 용품 ▲레저스포츠 용품 등이 전시된다.

이번 박람회는 참가업체 홍보와 최고의 마케팅장소를 제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관람문의는 02-780-0366으로 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쉐보레의 신형 크루즈.

쉐보레 신형 크루즈, 베일 벗었다

콘셉트카 ‘트루 140S’ 이미지 닮아

쉐보레가 신형 크루즈를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개했다.

신형 크루즈는 2012년에 공개됐던 트루 140s 콘셉트카의 이미지를 따왔다. 트루 140s는 2012년 부산모터쇼에서도 전시됐던 콘셉트카로, 당시에는 쇼카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았다.

신형 크루즈는 쉐보레의 패밀리룩인 듀얼 메시 그릴을 달았고 좌우에 날렵하게 누운 헤드램프가 장착됐다. 윈드 스크린(앞 유리)은 기존 모델보다 더 뒤로 누웠고 오버행(범퍼에서 차축까지의 거리)이 짧아져 더욱 스포티한 인상을 풍긴다. 쉐보레는 새로운 디자인 슬로건인 ‘가슴을 뛰게 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런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설명한다.

중국시장용 모델에는 두 가지 엔진이 장착된다.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선보인 1.4ℓ 가솔린 터보 엔진이 그 중 하나고, 1.5ℓ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나머지 하나다.

변속기는 3종류가 마련된다. 6단 수동과 6단 자동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7단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DCG)가 그것이다. 쉐보레 측은 “기존 모델보다 연료효율이 14~21% 향상돼 동급 최고의 경제성을 자랑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쉐보레는 “연비와 핸들링, 인공지능 기술에서 새로운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신형 크루즈는 2015년부터 미국,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며, 한국에서의 생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모바일 업무 확산되지만…

회사 정보 접속 불편 여전

모바일을 활용해 스마트 워크 환경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IT 정책이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외 지역에서의 회사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 솔루션 글로벌업체인 VM웨어(VMware)코리아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어콘과 공동으로 조사한 ‘VM웨어 2014 아태지역 업무환경에 대한 리서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VM웨어와 에어콘은 지난 1~2월 두 달 간 아태지역 14개국 직장인 및 대학생 등 2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회사의 정보기술(IT)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배경에는 업무 활용도가 높은 데 비해 그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이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이들 중 85%는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모바일 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회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무용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원활해지면 장소에 구애없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유재성 VM웨어코리아사장은 “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바일 클라우드를 통해 사무실 밖 업무를 지원해 주길 원하는 직원들의 니즈에 맞는 IT 지원책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VM웨어코리아는 지난 10일 데스크톱, 노트북,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엔드유저 컴퓨팅 솔루션 VM웨어 호라이즌 6를 발표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테이크아웃도 바로

배달앱 ‘부탁해!’ 새 기능

똑똑한 앱 하나만 있으면 음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테이크아웃할 수 있다. 배달앱 ‘부탁해!’가 업계 최초로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선보였다.

‘부탁해!’를 서비스 중인 메쉬코리아는 22일 ‘테이크아웃’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 ‘앱 2.0’을 출시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주문이 가능하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지갑이 없어도 포장 주문할 수 있다.

전화로 주문하는 테이크아웃의 경우 일부 고객들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지 않아 적지 않은 음식을 버리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상 테이크아웃 주문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부탁해!’는 앱에서 선불 결제를 한 뒤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해 상점 측의 손실을 최소화했고 소비자는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즉시 포장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中 올레드TV시장 잡아라

LGD 언론·블로거 체험행사… 현지업체 협력 강화

LG디스플레이가 초고화질(UHD) 3D에 이어 올레드TV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TV시장인 중국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중국 오피니언리더 대상의 순회 체험회 ▲중국 로컬 TV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올레드 캠프조성 ▲중국에 특화된 올레드 브랜드 제작 등과 같은 선제적 마케팅을 통해 붐을 조성하고, 차세대 프리미엄 TV로 포지셔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TV 전진기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이미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 세계 TV시장을 선도하는 트렌드세터(Trend Setter)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TV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난해 평판TV 매출액이 274억 달러(28조원)로 전 세계 매출액의 29.4%를 차지했다. 평판 TV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UHD와 3D TV도 2013년 각각 58.8%, 43.1%의 점유율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우선 언론과 파워블로거 등 오피니언리더 대상의 올레드TV순회 체험회를 진행해 LCD와 차별화된 화질을 구현하는 완벽한 TV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4월 상하이에서 디자이너와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해 올레드TV 우수성 체험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광저우·선전·동관 등 화남 지역의 업계 전문가와 블로거·언론인 등 50여명을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으로 초청해 체험행사를 했다.

이 행사에서는 디자인뿐 아니라 명암비와 색재현율, 시야각과 같은 올레드TV 고유의 화질 특성을 시연했다. 또 일반 공중파 방송을 LCD와 비교 시연해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 같은 방송시청 시 확연히 드러나는 올레드TV의 화질 우수성을 비교 체험토록 했다.

또 중국의 주요 로컬 TV업체와 올레드 캠프를 조성해 중국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카이워스·콩카·창홍 등 중국의 3개 주요 TV 메이커는 5월 1일 노동절 연휴 특수에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을 장착한 올레드TV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동원 프로모션 담당 전무는 "올레드TV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어떤 디스플레이보다 완벽한 TV"라며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세계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에서 성공여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올레드TV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22일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에서 광저우, 선전, 둥관 등 화남 지역의 업계 전문가와 블로거, 언론인 등 50여명을 초청해 올레드 TV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화남지역의 블로거와 기자들이 동일 영상과 방송화면을 띄운 55인치 커브드 올레드TV(왼쪽)와 55인치 커브드 LCD(오른쪽)를 비교해 올레드TV의 화질 우수성을 체감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삼성전자 '인버터 제습기'. /삼성전자 제공

전력난 예상… 절전 가전이 '답'

이상고온·황사잡는 에어컨·청소기 인기

이상고온 현상으로 따뜻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여름 필수 가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현상과 이른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청소기·세탁기·제습기·에어컨 등의 가전이 인기를 얻고 있다.

22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름철 전력란을 고려해 절전 가전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초절전 '삼성 인버터 제습기'를 출시했다. 삼성 인버터 제습기는 사계절 내내 전기료 걱정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를 채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보다 최대 36% 가량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적정 습도를 맞춰주는 '자동모드', 제습 속도를 최대 20% 이상 향상시킨 '터보모드', 소음을 줄여주는 '정음모드' 등을 갖춰 소비자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빨래를 자연건조에 비해 약 7배 더 빨리 말려주는 '의류건조 기능', 액세서리로 제공되는 신발 키트를 활용해 신발 안쪽까지 손쉽게 건조시켜 주는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특징이다.

동부대우전자의 '멀티형 에어컨' 역시 초절전 인버터 시스템을 채용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 기존 정속형 에어컨 보다 전력 소모량을 절반 이상 줄인 절전 가전제품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냉방 및 제습 등 기본기능에 집중하되 부가기능을 간소화했다.

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한 맞춤형 청소기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멘스 'Z5 청소기'는 2400W 출력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면서도 소비전력은 850W로 최대 약 3배 절감해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뛰어나다. 먼지봉투, 모터보호 필터, 워셔블 메가 헤파필터 등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은 먼지와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깨끗한 공기만 외부로 배출해 맑은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 차단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몰에 방사능 오염식품·유해 장난감·멜라닌 과자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신세계몰·이마트몰은 22일 서울 중구 소재 신세계몰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을 갖고, 시스템구축에 합의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판매를 차단한다. 소비자는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면 어디서나 안심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인증획득으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서는 방사능 오염식품·유해 장난감·멜라민 과자 등 위해상품의 검색·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기존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모두에 위해상품 차단막을 구축해 자사의 모든 유통망에서 위해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한상의는 2009년 5월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고, 현재 38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4만5000여 개 매장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로 확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사업실패 수출中企 '재기 돕는다'

사업에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 지원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를 계기로 무역보험공사는 보유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캠코에게 선별적으로 매각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갚지 못한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채권은 직접 관리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캠코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장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허용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다. 취업알선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는 것이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된다"며 "수출중소기업인의 자활을 지원해 어렵게 개척한 해외시장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 개척 노하우를 통한 새로운 시장진출을 통해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전 직원 자율 해외여행 '사기 충전'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⑬ 대한에이앤씨

각기 다른코스 경험 눈길
3년마다 한 달 유급휴가
1년 5개 교육 수강해야



대한에이앤씨 직원들이 사내에 위치한 '영감의 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인 대한에이앤씨 직원들은 여름휴가보다 매년 한차례 진행되는 해외 인센티브 트립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별 다섯 개짜리 리조트나 호텔에 머문다는 설렘은 기본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에이앤씨의 인센티브 트립은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직원 자율에 맡긴다. 이 점이 대표님 말씀, 팀별 목표 발표, 장기자랑, 질펀한 술자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반 기업들의 해외 단합대회와는 다르다. 5박 6일에서 6박7일 동안 관광을 다니건 파티를 하건 아니면 그냥 쉬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필리핀 세부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진행된 인센티브 트립을 다녀온 후 80여명 직원들의 여행블로그에 80개의 각기 다른 여행 코스가 실려 있을 정도다.

백지희 대한에이앤씨 상무는 "'스스로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아봐야 클라이언트에게도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1인당 평균 200만원 이상의 자율 여행을 1993년 설립 이후 거의 매년 하고 있다"며 "일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재충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에이앤씨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가 연말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3년간 모은 연차휴가가 30일을 넘으면 안식월을 선물 받을 수 있다. 3년에 한 번씩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떠나는 셈이다.

◆배우자 생일에도 특별 휴가

직원 가족 챙기기도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다. 어린이날·크리스마스 등에는 자녀의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주고 배우자 생일에도 특별휴가를 선물한다.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도 남다르다. 모든 직원은 1년에 5개 이상의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브랜딩, 인포그래픽, 마케팅 등의 전문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영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은 사내에 위치한 '영감의 방'에서 외국인 직원이 직접 진행한다. 자칫 겉돌기 쉬운 외국인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한에이앤씨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이유다.

이같이 노력 덕분에 경영성과도 알차다. 국내에 '캡슐커피 혁명'을 몰고 온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를 비롯해 야큐브, 존슨앤존스, 뉴트로지나, 현대자동차, LG전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수많은 브랜드 컨설팅 히트 사례를 남기며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상·리서치 브랜딩은 물론 마케팅, 광고, BI(브랜드 아이덴티티), SI(스토어 아이덴티티)까지 5가지 솔루션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2월에는 '2014 iF 디자인 어워드'까지 수상했다. 올 매출목표 350억원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수시채용 인재 모집

대한에이앤씨는 수시채용을 통해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신규 채용인원은 10여명 내외다. 서류전형은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고 팀장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 본사는 물론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과 지사에 근무할 직원도 필요에 따라 뽑고 있다. 대한에이앤씨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은 구직자는 e메일(recruit@daehananc.com)로 지원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타잔이 앞으로나아가려면 현재 잡고 있는 줄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 줄을 붙들고만 있다면 발전은 불가능하죠."

백지희(사진) 상무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들이 대한에이앤씨에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기업 문화가 매우 독특하다.

모든 사내 결재를 사장에서부터 평직원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폐쇄적인 상사 때문에 좋은 의견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덕분에 아침식사 제공, '영감의 방' 설치, 인센티브 트립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 근무여건은 어떤가.

일반 회사처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규정돼 있지만 업계 여건상 야근이 잦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야근한 다음날 출근 시간을 조절해주고 인센티브 트립, 안식월 등 쉼표를 선물해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있다

-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100%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나 실패경험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회사와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인재라면 환영한다. /이국명기자

서승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가죽공예 ④

가죽, 다같은 가죽일까?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미로 아르테의 베지터블 가죽들. /서승희 기자

가죽은 말 그대로 가축의 피부를 벗겨낸 것이다. 소·돼지·뱀·악어 등의 피부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전해주기 위해 신발·옷·가방 등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 한다. 이러한 환골탈태 전의 가죽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 가죽으로부터 젤라틴을 비롯한 단백질 성분과 기름, 잔털 등을 긁어내는 과정 즉 무두질 또는 탄닝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최고급 가죽 제품을 떠올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태리 가죽을 떠올린다. 가죽으로 시작해서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구찌, 페레가모의 고향인 피렌체를 머금고 있는 데다 가죽 시장, 가죽 학교 등 연관산업도 발달했기 때문이다. 토스카나 주에 위치한 26개의 업체가 소속된 이탈리아 식물성 태닝 조합 베라펠레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진짜가죽'이라는 이탈리아어인 베라펠레는 수공 전통 등 정해진 기준을 통과한 식물성 태닝 가죽을 인증해주는 영광스러운 표시 중 하나다. 가죽 구매시 손바닥 표시를 발견했다면 품질에 대한 의심을 거둬도 된다.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미로 아르테 강사는 "이탈리아 고급 제품은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 대개 수작업을 하죠. 부위로 보자면 소의 어깨와 엉덩이에 해당하는 곳의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요. 그 아래 부위는 뱃살이예요. 축처져서 소품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이죠"라고 말했다. /ssh814@

합격하려면 PR능력 키워라

기업 90% "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 반영"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문턱을 넘어서려면 스펙대신 자기 PR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9.4%가 반영한다고 답했다.

특히 85.6%는 스펙은 부족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스펙은 뛰어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서 탈락시켰다는 응답도 78.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갖춰야 해서'(48.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39.9%), '업무상 필요한 능력이라서'(36.2%), '업무능력도 뛰어날 것 같아서'(24.7%) 등을 거론하는 기업도 많았다.

평가 방법으로는 언어적 요소 중에서 '표현력'(52%, 복수응답)이 1위에 올랐다. '논리성'(42.1%), '솔직함'(38.7%), '설득력'(38.7%), '명료함'(35.1%), '간결함'(21%) 등을 평가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비언어적 요소로는 '말하고 듣는 태도'(63.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얼굴 표정'(49.1%), '시선 처리'(41.3%), '자세'(37.6%), '발음'(25.8%), '말하는 속도'(17.3%), '목소리'(16.6%) 등이 뒤를 이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도 유리하다"며 "대답을 할 때에는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등을 숙지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아이폰 충전 케이블 “화상사고 잦다”

한국소비자원 자발적 리콜 요구



애플사가 아이폰5 등 구매자에게 기본 제공하는 라이트닝 케이블. 기본적인 설계 잘못으로 일반 충전기 등과 달리 접속 단자가 외부로 노출돼(위 사진) 전원 연결 후 지속적으로 피부에 이 부분이 접촉될 경우 화상을 입게된다. 실제 화상 피해사례.(아래)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아이폰5 등의 모바일 기기 충전·데이터 전송용 라이트닝 케이블이 설계 잘못으로 화상 등 이용자 위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본지 4월 17일자 인터넷보도**)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공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 애플코리아 측이 이용자 화상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커녕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아이패드·아이팟 등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해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다.

일반적인 타사의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그러나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수면 등으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측은 지난 17일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었다. 또 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3건의 피해자 신고자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런 위해 사례가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애플의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https://discussions.apple.com/)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게재됐다. 그런데도 애플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화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상사고에 대해 애플은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자사의 주장을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며 애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애플이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 모씨(남·20대)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품 사용 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경고 표시는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애플은 제품 사용설명서 및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 관련 주의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근거로 애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안전한 제품임을 주장하며,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안전감시팀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플로리다 내추럴. /매일유업 제공

농부가 생산한 '착한 제품' 홍보

직접 재배 스토리 담아 고객 선택 유도

최근 식품업계는 원재료를 직접 재배하는 농부가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진정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농부가 직접 재배한 제품이라는 점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제품 패키지에 농부의 스토리를 삽입하거나, 일반인 농부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매일유업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한 100% 프리미엄 착즙주스인 '플로리다 내추럴'은 땅·나무·과일을 가꿔 주스까지 직접 만드는 플로리다 농부 스토리를 강조하며 제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1년 전 플로리다 농부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부터 시작됐다. 농부들이 토지 관리부터 수확·포장·착즙 등 주스를 만들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주스 패키지 후면에는 플로리다 농부의 스토리를 실어 소비자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파리크라상의 대표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영천 미니사과를 원료로 한 제품 7종을 출시하면서 실제 해당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를 모델로 선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최근 '산청 딸기'를 활용한 제품 10여종을 출시하며 딸기를 직접 재배한 일반인 농부를 모델로 내세웠다.

또 CJ푸드빌의 한식 브랜드 '계절밥상'은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가꾼 식재료로 신선한 제철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과 함께 우리 농가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매장 입구에 농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계절장터'를 마련해 한국벤처농업대학과 공조로 이 대학 출신 농민들이 땀과 정성으로 가꾼 농작물을 직접 홍보하며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정영일기자

기술 + 친환경 '그린 아웃도어' 주목

화산재·커피 찌꺼기로 만든 기능성 의류 출시

버려진 코코넛 껍질과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 화산재와 커피 원두 찌꺼기로 만든 재킷. 일종의 '쓰레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그린 아웃도어' 트렌드가 아웃도어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밀레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버려진 코코넛 껍질을 탄화시켜 만든 친환경 섬유 코코나의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 다양한 제품에 코코나를 활용하고 있다. 코코나는 면과 같은 천연소재보다 수분을 건조시키는 속도가 빠르고 마모에 강하며 투습력 또한 탁월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은 커피 원두 찌꺼기를 재활용해 만든 에스카페 소재를 적용한 워렌 재킷을 지난달 출시했다. 에스카페란 커피 원두 찌꺼기에서 추출한 나노 입자를 원사에 주입해 생산된 친환경 기능성 소재다. 수분이 원단 표면에 닿으면 넓게 퍼지면서 흡수·발산 돼 빠른 속도로 건조되고 커피 특유의 탈취 기능이 특징이다.

코오롱스포츠는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쿨맥스 에코메이드 소재를 사용한 남성용 폴로티셔츠를 출시했다. 세척한 폐플라스틱병을 조각낸 후 칩으로 변환시켜 쿨맥스 원사를 추출해 직조시킨 원단이 쿨맥스 에코메이드다. 흡습·속건 기능은 물론 염색 표현력도 우수해 선명한 색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화산재에서 원사를 뽑아 만든 미네랄레 소재를 사용해 땀을 옷 밖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미네랄레 방수 재킷을 최근 선보였다. 미네랄레는 여타 소재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 땀과 같은 수분을 빠르게 퍼뜨려 체외 배출을 도와 탁월한 투습력이 자랑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불황 속 소비자 사로잡는 '작은 사치품'

디저트·립스틱·향수 등 실속 쇼핑 늘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작은 사치'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지만 적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호사로 꿈틀대는 소비 욕구를 대신하려는 니즈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디저트·립스틱·향수 등 인기

요식업계는 밥보다 디저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작은 사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 식품관인 '고메이494' 오픈에 힘입어 명품관 매출까지 10% 이상 증가하는 수확을 거뒀다.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뉴욕 치즈케이크 브랜드, 이태원과 청담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맛집을 입점시켰다. 이처럼 백화점 업계가 식품관 고급화에 열을 올리면서 업계에서는 '식품관이 잘 돼야 매출도 뛴다'는 말이 생길 정도다.

전통적으로 사치품이라고 여겨졌던 명품 화장품도 최근 립스틱과 향수를 중심으로 작은 사치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옷이나 액세서리 구입처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명품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장된 결과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화장품 업체는 물론 패션 브랜드까지 향수를 출시하고 있는데 특히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니치 향수'를 많이 선보이고 있다. 토리버치 오 드 퍼퓸의 경우 국내 초도 물량이 모두 팔리기도 했다. 뷰티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군에 속하는 립 제품 역시 부담 없이 명품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브랜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 매장 전경.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또 향초 역시 애호가가 생길 정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양초가 부활한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힐링' 트렌드와 '고급화'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향초가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힐링 트렌드에 부합하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것.

◆자기중심적 소비로 자리잡아

이처럼 작은 사치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일상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가치 소비'가 자리하고 있다.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향으로 차별화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황선아 인터패션플래닝 수석연구원은 "타인지향적이었던 소비가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돌아선 것이 작은 사치의 가장 큰 이유"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취향에 따른 소비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만족도 역시 커 앞으로도 작은 사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보송 마무리서 촉촉한 표현으로

'여배우' 통해 본 시대별 메이크업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여배우들은 강한 색조 메이크업보다는 피부 표현으로 자신만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들의 메이크업을 찬찬히 살펴보면 시대별로 다른 베이스 메이크업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는 완벽한 커버력과 하얀 얼굴을 중요시 여겨 어느 정도 피부 화장이 두꺼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한 듯 안 한 듯한 투명 메이크업이 대세로 떠올랐다.

요즘은 투명하게 피부 표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광채를 내는 마무리를 즐기는 반면 이 시기에는 번들거림 없이 보송한 아기 피부 같은 부드러운 마무리가 대세였다.

송혜교·전지현(사진) 등으로 대표되는 투명 메이크업의 아이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얼굴이지만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투명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쌩얼 미인'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최고의 히트 아이템인 BB크림이 대거 출시된 것도 이때이다.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 유행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전의 보송보송한 마무리에서 물기를 머금은 듯한 촉촉한 피부가 대세로 떠올랐다.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부 표현이었던 이 '물광 메이크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수많은 여성들이 반질반질하게 광나는 피부로 길거리를 누볐다.

당시 피부미인으로 꼽히던 대세 여배우로는 고현정·임수정 등이 있다. 갓 세수하고 나온 듯한 자연스러우면서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가 그들만의 스타일이 돼 현재까지도 피부 좋은 여배우의 대표로 손꼽히고 있다. 피부를 빛나게 하는 하이라이터, 한층 촉촉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페이스 오일 등이 인기를 끌며 물광 메이크업에 힘을 실었다.

터치 꾸띄르 관계자는 "최근에는 탄력 넘치는 라인으로 한층 작아 보이는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대세"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효도선물 안마기 3종 할인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전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효도 선물로 인기가 높은 휴테크 '발마사지기'와 동보헬스케어 '어깨닥터', 수타 방식 안마기 '딱따구리' 등 안마기 3종을 정상가 대비 40~5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튀는 아이디어, 평범 마스카라는 가라!

왁스 형태, 꺾이는 브러시 등 다양

롱래쉬·컬링·볼륨 등 사용 효과에 대해 강조하던 마스카라 시장이 최근 독특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등 아이디어 제품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마스카라 액부터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독특한 제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성아22의 '검X마스카라'(사진)는 실타래처럼 연장감이 뛰어난 검(Gum) 왁스 제형으로 검처럼 늘어나 덧바를수록 속눈썹이 길어지는 롱래쉬 마스카라다. 동양인의 눈 모양과 속눈썹 구조까지 고려해 고안된 동그란 모양의 브러시가 속눈썹을 360



도로 감싸 짧거나 쉽게 닿지 않는 속눈썹까지 찾아내 풍성하고 길게 연출한다.

보브의 '스판 마스카라'는 기존 화이버 성분 마스카라의 뭉치거나 꺾이는 현상을 보완해 스판 포뮬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천연 치클 성분을 함유해 마스카라 용액이 탄력 있게 늘어나 속눈썹을 풍성하게 연출해 준다.

브러시에 새로운 기술을 더한 신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더샘의 '에코 소울 90도 마스카라'는 속눈썹 각도와 사용습관에 따라 0도~90도까지 자유자재로 꺾어 사용할 수 있어 팔을 들거나 손목을 꺾지 않아도 쉽게 속눈썹을 컬링할 수 있다. 또 브러시 앞부분은 짧게, 끝부분은 길게 커팅된 스트레이트 브러시가 속눈썹 뿌리 부분부터 내용물을 촘촘하게 밀착시켜준다.

마죠리카 마죠르카의 '래쉬 익스펜더 엣지 마이스터'는 양날빗 브러시로 눈매의 가로와 세로를 확장시켜준다. 메인 브러시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들어 올리듯 빗어주고 맞은편의 미니 브러시로 짧은 속눈썹까지 도포할 수 있게 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목·어깨통증, 두통, 만성 요통…디스크 질환 적신호!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등 체형 불균형…초기에 잡지 않으면 심각한 디스크로 진행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오랜 직장생활로 늘 목이 뻐근하고 양쪽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받은 30대 회사원 A양은 최근 두통과 불면증으로 심해지면서 손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 가까운 한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어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됐다는 기사를 보고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에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상욱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안면 비대칭과 거북목으로 변형됐다고 설명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디스크 중기로 A양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에 A양은 약물요법이나 시술적인 요법이 아닌 휘어지거나 틀어져 있는 골격 구조를 직접 손으로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뼈와 근육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인 맞춤형 운동요법으로 주 2회씩 3개월을 치료받았다. 치료 후 A양의 두통과 불면증, 통증은 깔끔하게 사라졌다.

또 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요통과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개운치 않은 느낌으로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근처 정형외과와 교정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더 심해져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방문했다.

김 원장의 진단 후 B씨는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중기로 진행됐으며 요추 MRI 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밝혀졌다. 진단 후 김 원장은 간단하게 요추 신경 치료 주사로 B씨를 치료했으며 B씨는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요추 도수·감압·운동 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 중심적인 치료로 완치 가능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 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증상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치료 등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인 환자들은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받은 후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는다.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여러 유명 배우들이 다닌 강남초이스병원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이 병원이 내놓는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시술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과 교대역 인근에도 있다. 이 분원들은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최경규 교수 신경과학회 새 회장



최경규(사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대한신경과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최 회장은 최근 대전DCC에서 열린 '2014년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 제32대 회장으로 뽑혀 내년 3월까지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최 회장은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예방·교육·진단 및 치료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인도와 동남아에서 동양의대체의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의학(Integral Medicine)을 연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임상정보 교류 등을 통한 학회 발전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치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용기자

유일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국내 상륙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다.

한국얀센(대표 김옥연)은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다제내성 결핵은 기존 결핵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질환으로 지금까지는 치료가 힘들고 치료 성공률도 낮았다. 퀴놀론계 항생제 중 하나인 서튜러는 이런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적응증을 가진 유일한 치료제로 결핵균의 에너지원이 되는 효소와 마이코박테리아 아데노신 3 인산 합성 효소를 억제해 결핵균의 복제를 막는 역할을 한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얀센은 서튜러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다제내성 결핵과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오래 앉아 있어도 위험한 하지정맥류

높아진 정맥 내 압력이 원인

스튜어디스나 교사 등 오래 서있는 직업군에서 하지정맥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이 질환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혈관 중 하나인 정맥 내부에는 판막이 있어 혈액의 흐름을 항상 심장 쪽으로 유지시키는데 이런 판막에 손상이 생겨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역류해 정맥이 늘어나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것은 다리 표재 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진 탓이다.

이 질환은 미용상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다리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만성 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미루면 피부 착색·혈전염·피부 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평소 다리 저림이 잦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통증이나 부종으로 고생한다면 즉각 병원을 찾아 치료 받는 것이 좋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면 하지정맥류의 원인인 정맥의 역류 부위를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치료는 원인 부위나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증상이 가벼우면 압박요법과 주사요법인 혈관 경화 요법 등이 가능하며 심하면 레이저치료술, 고주파치료술 등을 이용해야 한다.



레이저치료술은 정맥 안으로 레이저 열을 전도시켜 정맥을 막는 방법이고 고주파치료술은 레이저 대신 고주파를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두 수술 모두 입원이 필요 없고 국소마취와 수면마취 아래에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김승만 구로튼튼병원 정맥류센터 원장은 "하지정맥류의 대부분은 복합적인 병용 시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완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희망이라는 합창이 필요할 때

'인간 노무현' 재조명, 그리움을 소망·희망·가능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망과 신뢰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세상과 나눠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이 시대 희망의 미학으로 엮은 스물두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 그리움을 글로 풀어내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바로 '바보 대통령' 노무현 주위를 맴돌다 지금은 한 없이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동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지 5년이 된 올해 이들은 그가 남긴 정신과 희망을 먼저 공유하고 있다. 그른 것에 대항하는 용기, 인간에 대한 예의와 가치를 수호하는 정의로움, 그



그가 그립다 유시민 외/생각의 길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 불의를 참지 않겠다는 소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또 이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희망의 불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졸이지만 자신의 의지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슬픔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당신 혼자만은 아니라고 흐느낀다. 우리 모두 함께 슬퍼하고 있고 마음 속 희망의 꽃망울을 터뜨려야 한다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과 일상을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노무현을 만날 수도 있고 책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테마앨범도 수록돼 있다.

그리움은 그리움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 저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진다고 믿고 이제 눈 앞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야 할 때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한 데 모인 대나무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볼품없는 작대기지만 한 데 모인 대나무들은 장관을 이룬다. 바람이라도 불면 특유의 바람소리에 가슴 속 깊숙이 뚫리는 기분이 든다. 이 '바람연주'는 한 데 모인 대나무가 만든다. 소나무 한그루가 만든 그늘보다 대나무 숲이 만든 그늘이 더 어둡지만 그늘의 농도만큼이나 더 시원하다. 텅 빈 대나무도 한 데 모이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명소 옆 맛집'(유은영·민혜경/알에이치코리아) 중 -

/김학철기자 kimc0604@

한국인에게 영어란 무엇인가

화제의 책

한국인과 영어

강준만/인물과사상사



한국사회 최대 생존무기

한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어 교육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영어를 공용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의 영어에 대한 욕구에는 일종의 광기가 어려 있다. 대체 한국인에게 영어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인에게 영어란 권력이자 종교이자 공포라고 정의하며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생존 무기로 군림하고 있는 영어에 대해 시대별로 파헤쳐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영어는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권력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교권 장악의 수단이자 입신의 수단이었고 '영어를 모르면 패배자가 된다'는 인식이 시작됐다.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자 미국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일종의 시대정신이 됐다. 본격적인 수출시대가 열린 70년대에는 영어가 생존의 문제가 됐으며 90년대 국제화와 함께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2000년대에는 영어와 정치가 유착해 대통령 후보들까지 영어교육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우리 영어 교육열은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이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영어 전쟁'도 대학 입시 문제처럼 그 배경에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노력하기에 따라 서열이 달라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영어 광풍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이 해결책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사회와 영어에 대한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흥미롭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새로 나온 책

경제·경영

어니스트 티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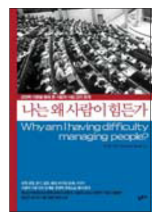
세스 골드먼·배리 네일버프/부키



금전적 성공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거둔 유기농 공정무역 음료 회사 '어니스트 티'의 이야기를 그린 비즈니스 만화다.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제품·지속 가능성·파트너십 등의 원칙을 지키며 성공한 '착한 기업'의 경영 스토리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알투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공감을 이끌어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에 저자는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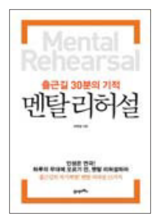
자기계발

10년 전을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 아리카와 마유미/웅진지식하우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던지는잔잔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선택지가 많기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선택지를 줄여야만 인생에 떠밀려가지 않는다며 10년 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한다고 냉정하게 조언한다.

멘탈 리허설 조관일/21세기북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다. 그래서 힐링 열풍이 요란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 치유가 아닌 사전 조치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매일 출근 때마다 멘탈 리허설을 해 앞날을 예측해 보고 대비하라고 조언한다. 일과 생활의 자기혁명은 여기부터 출발한다.

엔지니어처럼 생각하라

김영한/왕의서재



저자는 이 책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트리즈를 통해 해결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트리즈는 엔지니어 마인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창의성 기법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한눈에 볼 수 있는 40가지 해결원리와 트리즈 매트릭스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건강

솔직한 갱년기 가이드

캐롤라인 카/아롬미디어



폐경기를 단계별로, 주제를 세밀하게 나눠 설명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몸의 변화와 증상에 대해 잘 이해하고 더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도표와 사례, 항목별 정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에세이

미스터 나이팅게일 문광기/김영사



잘나가던대기업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된 저자의 이야기다. 책은 생사를 넘나드는 병원에서의 치열한 일상, 삶과 죽음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환자와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의료진의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다.

가정·생활

화성에서 온 엄마, 금성에서 온 아이

원현주 외/시너지북



교육자,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일곱 명이 아이와 가슴으로 소통하는 방법과 행복한 아이를 위한 육아법을 공개한다. 이 책은 일곱 저자들의 경험담과 가치관을 담아 재미있고 톡톡튀는 육아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저자의 말에 주목하며 행복한 가정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역사·문화

우리도 몰랐던 한국사 비밀 32가지

이수광/북오션



이 책은 고조선 시대부터 구한말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5000년의 역사 속 대표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태종 13년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관측됐다는 기록, 고려시대 무신정변, 조선시대 양녕대군 폐위 등 굵직한 역사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민중사까지 광범위하게 저자는 소개한다. 계층을 망라하며 역사 속 미스터리를 파헤친 것이다.





밝고 유쾌함 속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배우 이이경(25)을 만난 첫 인상이다.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연기자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함이 느껴졌다. 첫 주연 데뷔작인 영화 '백야'에서 동성애 연기를, 최근 화제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섬뜩한 눈빛과 말 없는 악행을 펼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믿고 보는 배우 되고 싶어요"

유쾌함 속 진지함 지닌 이·이·경

◆ 반짝스타와 다른 길

이이경은 서울예대 연기과를 졸업한 후 연극 무대를 통해 연기력을 다져온 배우다. 규모를 떠나 연극과 뮤지컬, 타 학교 영화과 학생들의 습작에 출연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왔다. 소위 대박 작품을 만나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하이틴 스타들과 달랐다.

"젊은 예비 연극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는 젊은 연극제 무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첫 주연작 '백야'를 만나기 전까지 연극 무대에 전념했어요. 당시 연극 무대는 물론 독립 무성영화에도 출연했어요. 대사 없이 눈빛과 표정만으로 감정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다양한 작품을 통해 내공을 쌓아오던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함께 연극했던 선배의 권유로 연예 기획사에 프로필을 돌렸어요. 큰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10곳 정도 돌렸는데 4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만 학업과 연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 섬뜩 악역 인지도 '쑥'

드라마 '학교 2013' '나인: 아홉번의 시간여행'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별 그대'에서의 악역은 그의 존재감을 단번에 확장시켰다.

극중 이재경(신성록)이 소시오패스적인 악행이었다면 수행비서 이신은 직접적인 살인과 악행의 장본인이다. 게다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흔적도 남겨두지 않는 모습은 악행의 끝판왕다운 면모였다.

본의 아닌 극중 악행들은 실제로도 이이경을 '악행 끝판왕'으로 보이게 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식당 아주머니, 주변인들에 이르기까지 이이경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단다.

"별 그대 종영후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죠.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까지 무서워했죠.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나쁜 형'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완전 국민 나쁜놈 됐죠.(하하)"

이는 수행비서 이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는 "류승범 선배가 악역으로 출연한 '부당 거래'의 캐릭터처럼 작품 안에서 자유롭게 감정 기복을 드러내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놨다.

◆ 가라테 즐기는 스포츠광

데뷔 2년차 배우지만 다음달 개봉하는 '일대일'까지 벌써 영화 4편, 드라마 4편에 출연했다. 배우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배우 이병헌이 있었다.

"배우의 꿈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 이병헌 선배님이 롤 모델이에요. 제 방 한 벽면은 이병헌 선배님의 사진으로 도배됐어요. 이병헌 선배를 본받고 싶은 이유는 믿고 보는 배우이기 때문이에요. 코믹부터 진지한 정극까지 장르에 구분 없이 믿고 볼 수 있는 명품배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분량이나 배역 상관없이 기다려지는 배우. 영화나 드라마, 연극도 상관없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해보고 싶어요."

곱상한 외모와 달리 어릴 적 가라테, 초등학교 때는 테니스 대표로 활동했다. 평소 운동을 즐긴다는 그는 "기회가 되면 '정글의 법칙'이나 '우리동네 예체능'에 출연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SEENSEE COMPANY in association with
Colin Ingram, Hello Entertainment and Paramount Pictures presents
영국 웨스트엔드 최신 대작, 한국 초연!
AUDIENCE REVIEW
제목은 고스트지만, 무대와 모든 배우가 살아있는 공연!
- hush19**
구성짜임도 너무나 정교해서 보는데 감탄 밖에 나오질 않았다.
객석 어디서 보든 최고일 듯!!
- eoikl**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영화와 같은 감동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박수가 절로 나더군요.
- sunnyred06**
화려한 무대, 매직쇼, 감동적인 스토리, 최고의 연기력
뭐하나 나무랄것 없이 감동적입니다.
- hurdle**
돈으로 살 수 없는 표 값 이상의 것을 얻어갔던 시간이었고
우리나라 뮤지컬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최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 envyme**
무대 연출, 대박!
커튼콜에서 연출가에게 기립박수 보내고픈 심정!
- youngm2**
*인터파크 관람평 발췌
뮤지컬 고스트
GHOST
Special Discount
Sam 특별할인 30%
*김준현/김우형 샘 공연회차 할인
현대카드 M포인트 최대 50% 사용
*인터파크/신시컴퍼니 홈페이지 온라인 예매 시 사용가능
(단,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가능한 카드에 한함- 포인트소진할인)
NOW SHOWING
디큐브아트센터
주 원 김준현 김우형 아이비 박지연 최정원 정영주
주최 SBS 신시컴퍼니 제작투자 인터파크INT 후원 MAKE UP FOR EVER

'안방 대통령'이 부정적 이미지로

범죄 은폐 '신의 선물'… 재벌에 발목 '쓰리데이즈'

정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드라마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극적 재미를 위한 음모를 더해 최근 안방극장 속 대통령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 21일 방송에선 딸 한샛별(김유빈) 유괴를 총지휘한 진범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아들 김준서(주호)는 10년 전 기동찬(조승우)의 연인 이수정(이시연)을 무진에서 살해했다. 살인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한(주진모)의 계략으로 기동찬 형 기동호(정은표)가 뒤집어 쓰게 됐다.

결국 한샛별 유괴는 10년 전 사건을 덮기 위한 권력의 움직임이 평범한 어린 생명을 위협한 데에서 시작됐다. 이명한은 한샛별이 대통령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판단에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극악무도 행동을 벌였다. 범인인 김준서는 기동찬에게 "나는 대통령 아들이다.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오히려 협박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 드라마에서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묘사됐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뀔 뿐 국민의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고 부정적 시선이 캐릭터에 투영되고 있다"며 권력의 이면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설명했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선 경제권력 김도진(최원영)에 맞서는 정치권력 이동휘(손현주) 대통령이 등장한다. 현재 이동휘는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하는 대통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 그는 무기 제조업체 팔콘의 개였다. 당시 "큰돈을 벌고 싶다"는 김도진에게 "북한과 짜고 대통령을 저격하거나 서울에 테러를 일으키면 제2의 IMF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해외에 팔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미친놈이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동휘의 권력은 김도진이 만들어 준 것이고 지난 10일 방송에서 그는 김도진이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실천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자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평론가 정덕현씨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에 있어서도 공권력은 부재했다. 허술한 위기대처 능력에 국민은 권력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며 "작품에선 음모까지 더해 현실 불신을 드라마 속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대신 풀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BS 월화극 '신의 선물 14일' 대통령 역 강신일 /SBS 제공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대통령 역 손현주 /SBS 제공

'올스톱' 방송가 정상화 조짐

드라마·예능 방영예정… 케이블 '시기상조'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올스톱' 됐던 방송가가 월화드라마 방영을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MBC는 지난 21일 월화극 MBC '기황후'를 방영하며 정규 방송 회복에 나섰다.

MBC는 오는 23일부터 일일드라마 '엄마의 정원'(사진) 방영을 재개하며 지난16·17일 결방됐던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 역시 오는 23·24일 내보낼 예정이다. 수요 예능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당초 23일 정상 방송을 할 계획이었으나 결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별바라기' 첫 방송 또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 역시 지난 21일 전파를 탔다. 하지만 SBS는 '신의 선물'을 비롯해 수목극 '쓰리데이즈'와 예능프로그램 '심장이 뛴다', 특선 다큐 '최후의 툰드라-땅의 노래' 등을 뉴스특보와 이중 편성해 두고 사고 소식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KBS의 경우 드라마는 정상적으로 방영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은 결방할 예정이다.

KBS는 1TV를 통해 특집 뉴스를 내보낸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1TV), '천상여자'(2TV)를 정상 방송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0일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2TV)가 정규 편성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방한 이후로 대부분 결방 방침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안녕하세요'의 결방에 이어 '우리동네 예체능'(22일), '해피투게더3'(24일), '불후의 명곡', '인간의 조건'(25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2일'(26일) 등 모든 예능이 편성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케이블 채널들은 오는 27일까지 대부분 결방될 전망이다.

CJ E&M의 케이블 채널들은 오는 24일까지 모든 연예·오락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까지 결방키로 했다.

관계자는 "방송 재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지난 19일 첫 방송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된 올리브TV의 '마스터셰프 코리아3'의 방영 시기도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특히 tvN은 오는 24일까지 모든 예능물을 결방키로 하고 월화극 '마녀의 연애'와 시트콤 '감자별'도 방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엠넷 '와이드연예뉴스'는 오는 23일까지 결방이 확정됐으며, '엠카운트다운'도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4일 결방된다.

드라마의 경우 24일 이후로 방송이 재개될 확률이 높지만 관계자는 "오는 25일 방송 예정인 금토극 '갑동이'의 방송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

'밀회' 김희애 대역 알고보니

피아니스트 김소형… 편곡·연주로 숨은 주역

JTBC 월화극 '밀회'에는 숨겨진 주인공이 있다.

그는 바로 피아니스트 김소형(오른쪽 사진)이다. 드라마를 가득채우는 클래식음악을 총괄하고 있다. 김소형은 '밀회'에 등장하는 클래식 곡들의 선정부터 편곡, 음악 싱크 점검까지 드라마 속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 배우들과 대역들의 피아노 레슨부터 김희애(왼쪽)의 연주 장면 대역까지 맡으며 드라마 숨은 주역으로 맹활약 중이다.



그는 "내 연주 스타일이 과격한 편이라 김희애씨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몸동작에 과격함을 입혔어야만 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연주했을 때 손과 팔로 강하게 내리찍으며 연주하는 것이 여배우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따라와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김소형은 음악 총괄로서 대본을 본 후 안판석 PD와 정성주 작가가 연출하고자 하는 그림에 어울릴 만한 곡을 골라 '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21·22일 결방된 '밀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시 방송 재개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15&, 악동뮤지션 제치고 정상



박지민·백예린으로 결성된 15&(사진)가 악동뮤지션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SBS 'K팝스타' 출신 가수들의 영향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시즌 1 우승자 박지민이 소속된 15&가 시즌 2 우승자 악동뮤지션을 꺾고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는 22일 "15&의 '티가 나나봐'가 4월 3주차(4월 14일~4월 20일)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5&의 신곡 '티가 나나봐'는 박진영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풋풋한 소녀 감성을 표현했다.

이어 발매 후 줄곧 소리바다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던 악동뮤지션의 '200%'가 2위, 하이포·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가 3위에 올랐다.

또 알리가 들려주는 슬픔의 세레나데 시리즈 세 번째 곡 '자꾸 눈물이 납니다'가 4위, 유명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의 10주년 다섯 번째 주자 주니엘의 '다음날'이 8위를 차지했다. /양성운기자 ysw@



배우 현빈이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역린'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빈 공백은 없었다

복귀작 '역린', 웰메이드 역사 블록버스터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역린

톱스타 현빈의 제대 후 복귀작으로 높은 기대를 모은 영화 '역린'이 22일 언론시사회에서 베일을 벗었다.

'역린'은 정조 즉위 1년인 1777년 왕의 서재인 존현각에 자객이 숨어든 역사적 사건인 정유역변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당파간의 치열한 다툼 속에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매력적인 왕으로 그려진다.

현빈은 이 같은 성격의 정조를 때로는 예민하게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표현해 주연배우로서 극을 무리 없이 이끌어나간다.

외모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화면 곳곳에서 읽힌다. 볼살을 쏙 빼 날렵해진 턱선과 의상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단련한 정조를 그대로 표현했다. 흰색 곤룡포를 입고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는 현빈의 모습은 꽤 매력적이다.

현빈뿐 아니라 다른 배우들의 변신도 큰 볼거리다. 살수 역의 조정석, 살수를 길러내는 광백 역의 조재현, 궁의 최고 야심가 정순왕후 역의 한지민은 모두 기존 이미지와 180도 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왕의 충직한 신하지만 큰 비밀을 안고 있는 상책 역의 정재영의 연기는 더 말할 나위 없다.

드라마 '다모' '베토벤 바이러스' '더 킹 투 하츠'를 연출한 이재규 감독도 스크린 데뷔작인 이 영화에서 탄탄한 연출력을 선보였다. 폭우가 내리는 존현각에서 정조와 살수가 칼 대결을 벌이는 신은 아름답다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스타일리시하다. 촬영을 위해 새로 지었다는 존현각 세트 역시 정교하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왕의 암살을 이야기로 한 만큼 분위기가 시종일관 무거워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오락적인 재미는 떨어진다. 또 살수와 상책의 심상치 않은 관계가 일찌감치 드러나 뻔한 결말을 예상 가능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새롭게 탄생한 정조의 매력과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 화려한 액션이 잘 어우러진 또 한 편의 역사 블록버스터임은 분명하다. 3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공주' 비수기 극장가 관객몰이

5일 만에 7만명 찾아 박스오피스 4위



17일 개봉한 영화 '한공주'가 비수기 극장가에서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2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한공주'는 전날 9920명의 관객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외화 '선 오브 갓'과 '니드 포 스피드'를 제치고 20일보다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누적 관객 수는 7만851명을 기록해 개봉 5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한공주'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과 CGV무비꼴라쥬상 수상을 시작으로 마라케시국제영화제 금별상,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타이거상, 도빌아시아영화제 심사위원상·국제비평가상·관객상, 스위스 프리부르국제영화제 대상 등 국제영화제 9관왕을 휩쓴 수작이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친구를 잃고 쫓기듯 전학을 가게 된 공주(천우희)가 새로운 곳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이야기를 그렸다.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받은 호평과 시사회 후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81개 상영관에서 개봉했다.

한편 21일 일일 박스오피스 1~3위는 '다이버전트'(2만4806명),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2만4620명), '방황하는 칼날'(2만2864명) 순이었다. /탁진현기자

이병헌 '터미네이터5' 촬영 시작

지난주 미국행…세월호 사고로 조용히 출국



배우 이병헌이 22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이하 '터미네이터 5') 촬영에 돌입했다.

22일 소속사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병헌이 22일 미국에서 촬영을 시작했다"면서 "촬영을 위해 지난주 미국으로 떠났으나 세월호 사고 때문에 조심스러워 알리지 못했다. 본인도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터미네이터 5'의 제작사 스카이댄스 프로덕션도 공식 트위터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일만 남았다. 촬영을 시작했다"는 글을 올려 크랭크인을 알렸다.

내년 7월 개봉 예정인 '터미네이터 5'는 사라 코너(에밀리아 클라크)와 존 코너(제이슨 클락)의 아버지인 카일 리스(제이 코트니)의 젊은 시절을 그리는 이야기로 총 3부작으로 제작된다.

이병헌의 배역과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으나 핵심 배역"이라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장윤현 감독 '평안도' 베일 벗어

CJ E&M 한중합작 프로젝트

장윤현 감독의 한·중 합작 프로젝트 '평안도'가 베일을 벗었다.

'평안도'는 지난해 중국과 '이별계약'을 공동 제작했던 CJ E&M이 국내 제작사 코디즈, 중국의 세기각성, C2M, 화처, 미디어아시아 등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영화다. 해양탐사팀이 이름 모를 무인도에 불시착한 후 원인 모를 죽음을 피해 남은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공포의 섬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다.

그동안 중국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공포·멜로·서스펜스가 합쳐진 차별화된 장르로 웰메이드 스릴러 탄생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1997년 '접속'으로 한국영화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알포인트' 'GP506' 등 한국형 미스터리 스릴러를 제작했던 장윤현 감독이 한국 시장을 넘어 중국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만의 가수 출신 배우로 인기를 얻고 있는 황리싱과 대만의 대표 중견 배우 겸 감독 따이리런이 주연을 맡았다. 중국 베이징·선전·후이저우 등에서 촬영 중인 '평안도'는 올해 하반기 개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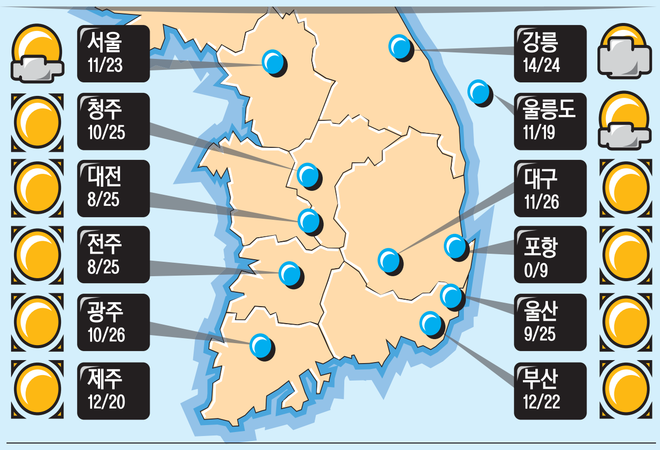
/유순호기자 suno@



날씨

4/23 水 일출시각 05:47 일몰시각 19: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따뜻한 봄철은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손만 잘 씻어도 손에 묻은 세균을 대부분 제거 할 수 있으니 식사하기 전 꼭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7		6	1		
7			5		8	2		
			9					8
4						9	2	
9		8				3		5
	5	3						4
2					3			
		6	4		9			2
		4	2		7	5		9

4	7			1	2			
		9	4				1	2
		8				4		
5		1		3			8	
7		2				9		6
	8			6		3		1
		3				5		
8	2				4	1		
			3	5			2	9

스도쿠 정답

8	9	2	7	4	6	1	5	3
7	4	1	5	3	8	2	9	6
6	3	5	9	2	1	4	7	8
4	6	7	3	8	5	9	2	1
9	2	8	1	7	4	3	6	5
1	5	3	6	9	2	7	8	4
2	1	9	8	5	3	6	4	7
5	7	6	4	1	9	8	3	2
3	8	4	2	6	7	5	1	9

4	7	6	5	1	2	8	9	3
3	5	9	4	8	6	7	1	2
2	1	8	9	7	3	4	6	5
5	6	1	7	3	9	2	8	4
7	3	2	8	4	1	9	5	6
9	8	4	2	6	5	3	7	1
6	9	3	1	2	7	5	4	8
8	2	5	6	9	4	1	3	7
1	4	7	3	5	8	6	2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와인가격 파괴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와인 값이 비싼' 나라다.

미국 나파밸리의 유명 와이너리 오퍼스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와인을 병당 200달러(약 21만원) 내외에 판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매가가 50만원 대다. 파리에는 품질 괜찮은 6000원짜리 부르고뉴 피노누아 와인이 널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면 3만원 이상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입가격의 70%에 달하는 각종 세금에 2~3단계에 걸쳐 유통 마진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와인 소매가는 수입가의 3배라는 등식이 성립했었다.

그런 와인 가격체계에 변화가 보인다. 유통업계의 대세로 자리잡은 가격파괴가 와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정부가 와인 가격을 낮출 요량으로 주류수입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와인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와인 소비자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시장 판도는 크게 변했다. 와인 시장도 거대 자본이 이끄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

영세 수입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팔 유통망이 없다. 결국 소매상이나 레스토랑에 공급하거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에 납품해야 한다. 문제는 대형 마트들이 모두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사고 이들은 대부분 와인 수입업체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가에 약간의 이윤만 붙여도 남는 장사니 유리한 위치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요즘 잘 팔리는 와인은 모두가 그룹 계열사가 수입한 저가 품목들이다. 신세계L&B가 수입하고 이마트가 판매하는 칠레 와인 'G7'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는 판매량 면에서 1등으로 등극한다는 예상이다.

때문에 중소 와인 수입상은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레스토랑도 와인 판매가 급감했다.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싼 와인과 함께 식재료를 사 들고 집으로 향한다. 집에서 입에 맞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인과 매칭해 즐긴다.

와인 가격의 파괴로 인한 변화는 하루가 다르다. 대체로 건전한 방향이지만 와인까지 대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로 고착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mcho@metroseoul.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업 운과 건강이 어떨지 궁금 대박은 힘들고 폐·관절 조심을

달별사랑 64년 10월 14일 양력

Q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업해서 지금 영업 중 입니다. 어디서 사주를 보니 제 자리에 재를 깔고 있어서 돈에 궁핍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없고 또 모아 놓은 돈을 까먹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앞으로의 사업운도 부탁드리고 건강상으로 괜찮을지요?

A 시간을 모르니 정확히 판단을 낼 수는 없지만 암록(숨은 재물)으로 재물의 궁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구인의 도움이 있는 길명인데 호사다마로 '석양에 노을 지는 형상'으로서 한곳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불안정 합니다. 이재능력이 있고 재물을 깔고 앉았으나 포태법상으로 사묘절(死墓絶)로 가고 있으며 점점 수그러가는 사업운이 되니 지금 하는 일이 대박 나기는 힘듭니다. 귀관학관(官貴學館)으로 지혜가 있고 학문이 뛰어나 교육계열도 인연이 됩니다. 명랑한 듯하지만 우울한 증세도 있으니 불면증을 조심하시고 폐, 대장, 관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판매직 이직 생각중인데 올핸 비정규직 궁핍함은 없어

EKFQUF사랑 여자 95년 5월 22일 양력 낮 12시20분

Q 지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시간도 불규칙적이고 그다지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며 일이 고됩니다.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 보고 싶은데 저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요? 공부보단 돈쪽으로 더 관심이 많은데 제 사주에 재물운은 있는지요? 올해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A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자신을 알고 상대를 대하면 어려움이 적게 됩니다. 귀하는 '마르지 않는 진흙'과 같이 음기(陰氣)를 품어 일도정진(一道精進)하는 끈기와 집념은 보이지만 고독하고 일종의 오기를 품고 있고, 생일지에 백호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니 많이 참고 지내야 합니다. 또한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함)으로 성정이 강하여 과격성을 드러 낼수 있으나 암록(暗綠:숨어있는 복록)이 있어 큰 재벌은 못되지만 재물에 궁핍함은 없습니다. 올해는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운으로서 정규적인 직장보다는 비정규적인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신장과 자궁질환을 조심해야 하니 몸을 따뜻이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23일 (음 3월 2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공돈이 생겨서 유쾌하다. **60년생** 허황된 일에 귀 기울이지 말라. **72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한다. **84년생** 취향에 맞는 일을 찾아 야호~.

소 — **49년생** 영원히 작별할 벗이 생길수도. **61년생** 땀 흘린 만큼 지갑은 두툼해진다. **73년생** 변수가 있어도 생각대로 진행할 것. **85년생** 능력에 벗어나 일을 벌이면 손해 본다.

호랑이 — **50년생** 시간은 흘러가면 상처는 사라진다. **62년생** 운기 열렸으니 마음껏 움직여라. **74년생** 도리를 다하면 기인이 나타나 돕는다. **86년생** 욕심 부려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

토끼 — **51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라. **63년생**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전화위복된다. **75년생** 편견에 굴하지 말고 소신 지켜라. **87년생**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용 — **52년생** 바쁜 만큼 결과도 풍성하다. **64년생** 예상과 결과 뒤집힐 수 있으니 명심하라. **76년생** 어설픈 으름장은 통하지 않는다. **88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야호~.

뱀 — **53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6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7년생** 뜻을 이루려면 껄끄러운 사람도 받아들여라. **89년생** 바쁜 가운데 틈이 생긴다.

말 — **42년생** 고집부리면 자식도 등 돌린다. **54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 있으니 기대하라. **66년생** 마음에 화사한 봄꽃이 핀 격이다. **78년생** 우울한 배우자에 감동의 펀치 날려라.

양 — **43년생** 모처럼 관록 발휘하고 야호~. **55년생** 제안할 일은 미루는 게 좋다. **67년생** 두 얼굴의 동료 때문에 착잡한 하루~. **79년생** 자존심 접으면 소통이 된다.

원숭이 — **44년생** 생각만 해만 기분 좋은 일 생긴다. **56년생** 사고의 틀을 한번 바꿔보라. **68년생** 꼼수 잘 못 부리면 찬밥신세 된다. **80년생** 짓궂은 연인 때문에 유쾌한 하루~.

닭 — **45년생** 어른 노릇하기 어려운 법~. **57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이 생긴다. **69년생** 배우자와 소통하려면 나쁜 습관부터 고쳐라. **81년생** 수익은 늘어나지만 부담 커진다.

개 — **46년생** 밖으로 나가면 눈귀가 즐겁다. **58년생**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70년생**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진다. **82년생** 마음먹은 일은 자신 있게 진행할 것.

돼지 — **47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9년생** 모호한 태도는 의심만 산다. **71년생** 친구와 금전거래는 단호히 거절하라. **83년생** 추진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22일 경기도 파주시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파주NFC)에서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안컵 대회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자축구 亞 정상 담금질

4년 만에 태극마크 박은선, 지소연과 시너지 기대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출격하는 태극 여전사들이 담금질을 시작한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 22명은 22일 오후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됐다. 대표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다음달 14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18회 2014 AFC 여자 아시안컵에 나서기 위해서다.

팀 일정 때문에 소집에 합류하지 못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NFC에 모였다.

4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박은선(서울시청)도 동료와 함께 파주 NFC에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입소했다. 이번 대회는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 월드컵 예선을 겸하는 대회다.

대회에서 5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윤덕여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더 높은 목표인 대회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윤 감독은 박은선·지소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격진에는 예상대로 영국 첼시 FC 레이디스에서 활약 중인 지소연이 포함됐고 여민지·박은선도 이번 대표팀에 승선했다. 지소연은 첼시의 주포로 연일 주가를 높이고 있다. 여민지도 FIFA 주관 대회인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 네 골을 기록하는 등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박은선은 지난 시즌 WK 리그 득점왕 출신이다.

환상 공격진을 갖춘 여자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벌써부터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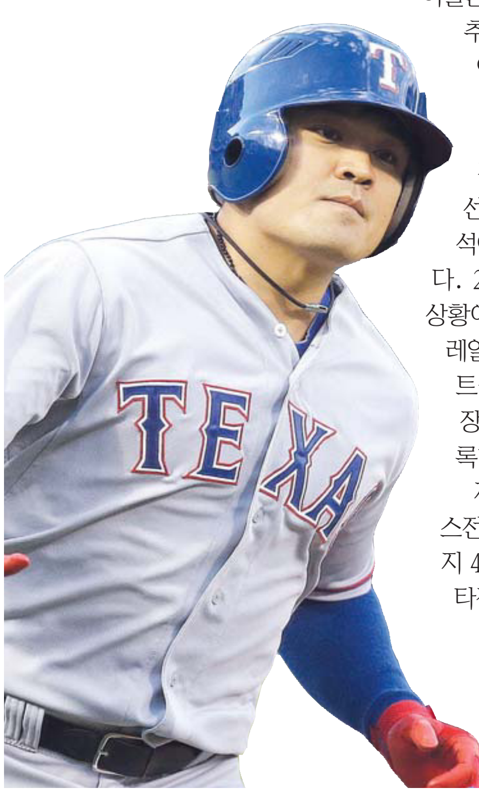
대표팀은 이날부터 훈련하고 다음달 11일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여자 아시안컵은 각각 4팀씩 두 그룹으로 나눠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각 조 1·2위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된다. 각 조 3위 팀끼리 5·6위전을 거쳐 상위 5개 팀이 내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 진출한다.

중국·태국·미얀마와 함께 B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15일 미얀마를 상대로 2003년 미국 여자월드컵 이후 12년 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첫 경기에 나선다. 17일 태국, 19일 중국과 차례대로 맞붙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추신수 4일 만에 홈런포

시즌 2호… 발목부상 교체
타율 0.314 출루율 0.432



'추추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호 홈런으로 라이벌전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22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코콜리시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원정경기에 1번·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에서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2볼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상대 선발 댄 스트레일리의 142km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시즌 1호 홈런을 친 지 4일 만의 홈런이다. 시즌 타점은 7개로 늘어났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랐다. 5회에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 내야 강습 타구를 때렸고, 투수를 맞고 3루 쪽으로 굴절된 공을 3루수가 1루로 송구해 아슬아슬하게 아웃됐다. 세이프 판정을 받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뒤집혔다.

추신수는 이 때 1루 베이스를 밟던 왼쪽 발목에 이상을 느꼈고 7회말 수비 때 마이클 초이스로 교체됐다.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314(70타수 22안타)로 끌어올렸다. 출루율은 0.432로 높아졌다.

텍사스는 3-3으로 맞선 8회초 1사 3루에서 도니 머피의 결승타가 터지며 4-3으로 승리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인 텍사스(11승8패)는 이날 승리로 1위 오클랜드(13승5패)에 2.5게임차로 따라붙었다.

텍사스 선발 다르빗슈 유는 6이닝 동안 8피안타(1홈런), 4볼넷을 기록하며 3실점한 뒤 7회말 제이슨 프레이저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날도 승수를 올리지 못한 다르빗슈는 올 시즌 1승 무패를 기록 중이다. 평균자책점은 0.82에서 1.61로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

KIA 한승혁 미풍? 태풍?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KIA 4년차 우완투수 한승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 말 드래프트 1순위로 KIA에 입단하자마자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2011시즌까지 쉬었다.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나 2012~2013년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수술 후유증 기간이었다.

올해는 달라졌다. 1군 중간계투요원으로 발탁돼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됐다. 처음에는 선발투수가 일찍 무너지면 뒤를 잇는 롱릴리프 요원이었다. 그러나 어느새 선발투수로 변신해 2경기에서 11⅔이닝을 던져 단 2실점했다. 두 경기 모두 팀의 4연패를 막아낸 호투였다. 붕괴 직전에 놓인 KIA 마운드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새로운 선발투수 한승혁은 아직은 미완의 대기이다. 입단 4년 만에 겨우 첫 승을 따냈을 뿐이다. 여전히 홈플레이트 앞쪽에 볼을 패대기 치는 등 제구력이 들쭉날쭉하다. 변화구로는 포크볼과 슬라이더가 예리한 맛도 있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그가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최고 153~154km에 이르는 강속구를 던지기 때문이다. 마운드에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칠 때면 쳐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직구만 줄곧 던지기도 한다. 그래도 상대타자들이 쩔쩔 맨다. 투구수를 조절하는 것이 숙제이지만 이런 무모한 정면 승부에 팬들이 박수를 보낸다.

야구계는 윤석민, 류현진, 김광현 이후에 모처럼 강속구형 토종 선발투수가 나타나자 반가운 모양이다. 새로운 인물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관중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한승혁에게 '스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어렵다. 앞으로 성공이 아닌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한승혁이 태풍을 일으켜 '스타' 별칭을 얻게 될 지 더욱 궁금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모예스 맨유 감독 결국 경질

긱스 임시 사령탑 맡을 듯



라이언 긱스(왼쪽)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AP 연합뉴스

데이비드 모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이 결국 경질됐다.

맨유는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모예스 감독이 구단을 떠난다. 구단은 그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 보여준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모예스의 뒤를 이을 사령탑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라이언 긱스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시 감독직을 맡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보도했다.

모이스 감독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후임으로 이번 시즌부터 맨유 지휘봉을 잡았으나 2014~201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1995~1996시즌 이후 18년 만에 유럽 최고 클럽팀을 가리는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57로 7위에 머물러 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2일

■목동

롯데	205	001	001	9
넥센	101	300	113	10

△승=한현희(1승) △패=정대현(2패 1세이브)

■문학

N C	000	000	410	5
S K	200	010	102	6

△승=박정배(4승) △패=김진성(1승 2패 5세이브) △홈런=나성범 5호(7회3점·NC) 최정 3호(9회2점·SK)

■대전

두산	003	020	100	6
한화	200	000	000	2

△승=니퍼트(3승2패) △패=클레이(1승2패) △홈런=김현수 2호(3회2점) 칸투 4·5호(3회1점, 5회2점·이상 두산)

■대구

L G	100	000	000	1
삼성	100	402	01X	8

△승=장원삼(2승1패) △패=리오단(3패) △홈런= 김상수 1호(8회1점·삼성)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2일

전북	0	0	멜버른